

# 합성수지, 중국 노동절 수요가 관건

## 4월 중순 이후 Bid 줄어 ... 중국 소비재 가격 Resin 700달러에 맞춰져

3월 중순 이후 Inquiry가 늘었던 중국의 합성수지 구매가 4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수지 무역상은 "3월 중순부터 증가했던 합성수지 수요가 4월 중순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기업들은 호남석유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정기보수로 재고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아 구매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합성수지 구매가 늘어나지 않으면 모노머(Monomer) 가격 대비 합성수지의 Margin Spread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에틸렌(Ethylene)은 EDC(Ethylene Dichloride)와 SM(Styrene Monomer) 등 타 Down Stream의 가격강세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프로필렌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강세와 PP 수요강세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전반적인 구매감소에 대해 생산기업 관계자는 "국제시장에서 값싼 임금으로 저가시장을 공략하는 중국의 소비재 가격이 합성수지 구매가격 기준 톤당 600-700달러 정도로 잡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2004년 합성수지 가격강세로 구매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최근 중국의 전력난으로 가공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정상적이지 못한 점과 중국 정부의 경제 연착륙설과 관련해 중국 은행들의 대출이 감소한 것도 중국 구매가 줄어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합성수지 무역상은 "중국의 향후 구매추이는 노동절을 전후에 알 수 있다"고 밝혔는데, 중국의 노동절은 5월1일부터 7일까지로 전통적으로 노동절 전후의 구매추이가 하반기 중국의 합성수지 구매에 영향을 미쳐왔다.

합성수지 중 Inquiry가 가장 줄어든 LDPE(Low-Density Polyethylene)는 국내 LDPE 생산기업들의 중국시장 점유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LDPE 수입시장은 2002년 213만4000톤, 2003년 219만7000톤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던 PVC 시장은 중국의 재고상태가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량이 감소해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및 PS(Polystyrene) 생산기업들도 SM 가격강세로 불가피하게 오퍼가격을 인상해 구매가 줄어든 상태이다.

합성수지 중국 수출가격은 LDPE가 CFR CMP(Chinese Main Port) 톤당 880달러, LLDPE(Liner Low-Density Polyethylene) 860달러,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860달러, PP(Polypropylene) 810-830달러, PVC 860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김동민 조사기자>

<화학저널 2004/04/27>